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1. Vol. 26, No. 6, 961 - 983

초월적 시간관 척도(TFTPS) 타당화

이 덕 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남 슬 기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죽음 이후 시간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가치관, 신념을 의미하는 초월적 미래 시간관을 측정하는 초월적 시간관 척도(the Transcendental-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TFTPS)를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친 TFTPS를 국내 일반성인 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체 682명 중 절반인 339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요인은 요인의 특성에 맞게 '심신 이원론적 관점'과 '초월적 관점'으로 명명하였으며, 각각 '심신 이원론적 관점' 3문항, '초월적 관점' 6문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43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모델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전체 682명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시간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희망을 통해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성별, 연령, 종교유무를 통해 집단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들을 비교함으로써 학문적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TFTPS, 시간관, 타당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희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동훈,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51112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Tel: 02-760-0558, E-mail: dhlawrence05@gmail.com

www.kci.go.kr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마주한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비단 삶의 끝이 아닌 삶의 일부이자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의미한다(Gray, 1951).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모순적 감정에 휩싸이게 되며, 죽음 이후 미지의 삶을 상상하게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고뇌는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Nuttin, 1964; Suddendorf & Corballis, 2007; Timoszyk-Tomczak & Bugajska, 2018; Zimbardo & Boyd, 2008). 죽음 이후에 대한 신념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극단적 신념으로 변질하여 종교분쟁,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살 및 살인, 의학적 치료 거부 등의 비합리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가져오기도 한다(Boyd & Zimbardo, 1997). 이렇듯 죽음 이후에 대한 신념은 인간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한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근본적 고뇌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고뇌는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다. 철학, 물리학, 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는 유한한 시간과 죽음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대상의 관념을 만들어 낸다는 칸트의 인식론을 근간으로 하여(Kant, 1965), 인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시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시간지각, 시간개념, 시간관 등 다양한 개념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Lewin(1942)에 의해 처음 시간관(time perspective)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Zimbardo와 Boyd(1999)에 의하여 시간관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Zimbardo 시간관 척도(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 Zimbardo & Boyd, 1999)가 개발됨에 따라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Zimbardo와 Boyd(1999)는 모든 개인에게 일생동안 절대적으로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시간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지향성(time orientation)의 차이에 기인한다 하였으며, 이때 시간관이란 시간지향성을 포함하여 인지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개념으로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대한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태도, 가치관, 신념들을 반영하는 심리적 구성물(psychological construct)을 의미한다.

Boyd와 Zimbardo(1997)는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개인의 정서, 사고, 행동, 기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죽음 이후 시간을 의미하는 초월적 미래 시간(transcendental future time)에 대한 개인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간주했다. 이에 따라 Boyd와 Zimbardo(1997)는 신체가 죽음에 이른 순간부터 영원(eternity)에 이르는 시간을 아우르는 '초월적 미래 시간관(Transcendental Future Time Perspective: TFTP)'으로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개인의 TFTP를 측정할 수 있는 초월적 미래 시간관 척도(Transcendental-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TFTPS)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www.kci.go.kr

3년 간 1,235명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TFTPS의 타당화를 진행하였으며, 죽음 이전의 미래 시간관과 죽음 이후 초월적 미래 시간관 사이의 심리적 개념의 차이를 탐색하여 TFTP의 개념을 반영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Boyd와 ZImbardo(1997)의 척도 개발 연구의 경우 TFTPS는 단일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에스토니아와 포르투갈에서 실시된 타당화 연구에서도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Ortuño, Paixão, & Janeiro, 2013; Seema, Sircova, & Baltin, 2014). 하지만 현재까지 TFTPS는 서구권 문화에서만 타당화가 이루어졌으며, 시간관이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Zimbardo & Boyd, 1999), TFTPS가 한국의 문화에서는 단일요인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서양 문화권은 진화론과 창조론, 사후세계, 절대자 등의 기독교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동양 문화권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TFTPS의 타당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Zimbardo와 Boyd(1999)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관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과거긍정(Past Positive), 과거부정(Past Negative), 현재숙명(Present Fatalistic), 현재쾌락(Present Hedonistic), 미래(Future) 시간관으로 구성된 ZTPI를 개발하였다. ZTPI는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시간관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Boyd와 Zimbardo(1997)는 TFTPS가 시간관을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TFTPS와 ZTPI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TFTP는 현재운명, 과거긍정, 과거부정과 유의미하지만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에스토니아 연구에서는 과거긍정, 현재숙명, 미래 시간관과 유의미하지만 약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포르투갈 연구에서는 과거긍정, 과거부정, 현재쾌락, 현재숙명, 미래 시간관 모두 유의미하지만 약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Ortuño et al., 2013; Seema et al., 2014). 이렇듯 TFTP가 기존 시간관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Boyd와 Zimbardo(1997)는 TFTPS가 시간관을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임을 주장하였으며, Ortuño 등(2013)은 TFTP와 기존 시간관이 다소 약한 상관을 보인다는 점을 통해 TFTPS가 기존의 시간관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시간관을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또한 TFTPS와 ZTPI의 상관을 확인함으로써, 한국판 TFTPS가 한국인에게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종교적 신념이란 사회적, 제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신 또는 절대자에 관한 의식, 관습, 신념을 의미하며, 사후 신념이란 죽음 이후에 대한 신념을 통칭한다. TFTPS는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태도, 사고, 신념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사후신념 및 종교적 신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aumsteiger & Chenneville, 2015; Muldoon & King, 1995; Peterman, Fitchett, Brady, Hernandez, & Cella, 2002; Rasmussen & Johnson, 1994). 하지만 Boyd와 Zimbardo(1997)에 따르면 TFTP가 종교적 신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지라도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배타적인

www.kci.go.kr

종교적 독실성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종교적 신념 및 사후신념을 아우르는 TFTP만의 독특한 특성을 통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대한 동기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전통적 미래 시간관과 달리 TFTP는 죽음 이전으로 경계가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로 영원하게 확장되기 때문에 기존 시간관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독특한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간관은 자존감, 탄력성, 낙관성, 희망과 같은 개인의 심리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nagnostopoulos & Griva 2012; Sircova, Sokolova, & Mitina, 2008; Zimbardo & Boyd 1999). TFTP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사후신념 및 종교 신념은 인간의 정신건강, 사고,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rown, Carney, Parrish, & Klem, 2013; Flannelly, Ellison, Galek, & Koenig, 2008; Harrawood, 2010; James & Wells, 2002; McClain-Jacobson, Rosenfeld, Kosinski, Pessin, Cimino, & Breitbart, 2004; Peterman et al., 2002; Unterrainer, Lewis, & Fink, 2014). Yonker, Schnabelrauch와 DeHaan(2012)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종교적 신념은 높은 자존감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종교신념이 삶의 부정적 사건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여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radelos et al., 2018; Hunter-Hernández, Costas-Muñíz, & Gany, 2015). 뿐만 아니라 종교신념은 개인의 낙관성과 희망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hang 등(2013)과 Cheadle, Schetter(2018)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낙관성과 희망을 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울 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TFTP는 초월적 미래 시간에 관한 신념을 비롯하여 지향성, 태도, 가치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종교신념, 사후신념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리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TFTP와 자존감, 탄력성, 낙관성, 희망 간의 연관성을 탐색함으로써 TFTP가 개인의 심리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외에도 TFTP와 관련이 있는 주요한 변인으로는 성별과 연령, 종교 유무를 들 수 있다. 성별의 경우, Boyd와 Zimbardo(1997) 연구와 에스토니아, 포르투갈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TFTP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oyd & Zimbardo, 1997; Ortuño et al., 2013; Seema et al., 2014), 여러 선행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사후 신념과 종교적 신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Klenow & Bolin, 1990; Schnabel, 2015). Schnabel(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 집단에서 여성일수록 사후신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enningsgaard와 Arnau(2008)의 연구에서는 여성일수록 종교를 통해 삶의 목적, 가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재적 종교성향(intrinsic orientation)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oyd와 Zimbardo(1997)의 연구에서는 연령

www.kci.go.kr

에 따른 TFTP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 초월적 미래 시간관의 점수가 가장 낮았지만, 50대 이상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다수의 종교신념 및 사후신념 또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oussaint, Williams, Musick와 Everson(2001)의 연구에서 18~44세의 낮은 연령집단보다 45~64세의 중간연령 집단과 65세 이상의 고연령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FTP와 연관성이 깊은 변인은 종교유무이다. Boyd와 Zimbardo(1997)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종교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종교집단에 소속된 사람보다 TFTPS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성과 종교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Kim, Seidlitz, Ro, Evinger, & Duberstein, 2004)에 따르면 어렸을 적 특정 종교를 믿었지만 성장한 이후 어떠한 종교집단에도 속하지 않게 된 사람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무교인 사람들과 성장하면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비해 영성과 종교적 신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서경현과 전겸구(2004)의 연구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대학생보다 신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영적 안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관은 개인의 가정환경, 발달과업, 사회, 문화, 종교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 중요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Hulbert & Lens, 1988; Lens & Gailly, 1980; Nurmi, 1991), TFTP 또한 개인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TFTP가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 연령대별, 종교유무에 따라 TFTP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TFTP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TFTPS에 대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이제까지 TFTPS의 타당화 연구는 ZTPI에 비해 적게 이루어졌는데, Boyd와 Zimbardo(1997)의 척도 개발연구를 제외한 TFTPS의 타당화 연구는 에스토니아와 포르투갈에서만 진행되었다(Ortuño et al., 2013; Seema et al., 2014). 국내의 경우 여러 차례 ZTPI에 대한 타당화 연구 시도가 있었으나(박희은, 김기호, 이장한, 2017; 윤소정, 김정섭, 2012; 이덕희, 2019; 탁진국, 장성배, 김수연, 이병걸, 남동엽, 2016), 국내를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진행된 TFTPS의 타당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시간관은 개인이 처한 사회, 문화, 종교적 맥락에 중요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신념으로(Hulbert & Lens, 1988; Lens & Gailly, 1980; Nurmi, 1991).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양 사회와 달리 한국에는 매우 다양한 종교가 분포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중요하게 보장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TPTPS를 타당화 하는 것은 한국인이 갖는 특유의 TFTP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후신념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며, 실증적인 근거를 토대로 연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루기를 꺼려한다(Ortuño et al., 2013; van Beek & Kairys, 2015). 하지만 TFTP의 핵심은 실제로 신이 존재하는지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심리·사회적

www.kci.go.kr

관점에서 TFTP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 현재 개인의 행동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Galek & Porter, 2010; Seema et al., 2014; Zimbardo & Boyd, 2008). 실제로 인지신경학, 심리학 등 다수의 분야에서는 인간의 가까운 미래부터 죽음 이후의 먼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은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동기이며, 인류가 무구한 시간에 걸쳐 변화무쌍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적 자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Suddendorf, Addis, & Corballis, 2009; Szpunar, 2010; Toda, 1983; Tulving, 1985). 즉, 인간은 일화적 기억을 통해 시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죽음 이후의 미래 시간까지 상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상력은 인간의 사고, 가치관, 행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zpunar, 2010; Tulving, 1985; Tulving & Kim, 2007). 따라서 전통적인 미래 시간관뿐만 아니라 TFTP 또한 인간의 행동에 중요한 동기적 요인이며,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탐구되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TFTPS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TPTP의 개념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 TFTP가 한국의 심리적 안녕감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판 초월적 미래 시간관 척도(Korean version of Transcendental-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K-TFTP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K-TFTP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준거타당도, 집단 변별 타당도를 검증할 것이다. 준거타당도의 경우 원 논문을 바탕으로 ZTPI와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영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난 자존감, 탄력성, 낙관성, 희망과의 연관성을 탐색할 것이다. 집단 변별 타당도의 경우, TFTP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종교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일반 성인의 TFTP의 양상을 확인하고, TFTP와 개인의 심리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행동을 죽음, 사후신념, 초월 등과 같은 실존적 주제가 심리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제번호 : NRF-2017S1A5A2A01025729」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설문은 온라인 설문 업체인 ○○○를 통해 국내 인구센서스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설문 소요시간은 약 30분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적립금이 제공되었다. 설문은 총 84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725명(85.8%)이 설문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25명 중 모든 문항에 하나의 응답을 하는 등 불성실한 응답을 한 43명(5.9%)을 제외한 682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www.kci.go.kr

본 연구의 설문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빈도(%)
성별	
남성	364(53.4)
여성	318(46.6)
연령	
20대	136(19.9)
30대	190(27.9)
40대	222(32.6)
50대 이상	134(19.6)
종교유무	
있다	279(40.9)
없다	333(48.8)
거주지역	
서울	133(19.5)
인천·경기	208(30.5)
충청	80(11.8)
경상	163(23.9)
전라	67(9.8)
강원·제주	31(4.6)

연구도구

초월적 시간관 척도(the Transcendental-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TFTPS). 본 연구에서는 Boyd와 Zimbardo(1997)가 초월적 시간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TFTP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석사과정생 1명과 박사과정생 1명이 번역한 후 영어와 한국어 구사가 원활한 교수 1명이 최종 검토하였으며, 번역자 전체가 최종 토의를 통해 문항 번역을 완료하였다. TFTPS는 초월적 시간관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TFTPS의 한국판 타당화를 위해 사전 저작권자인 Boyd와 Zimbardo로부터 TFTPS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한국판 단축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short Form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K-ZTPI-15). 본 연구에서는 Zimbardo와 Boyd(1999)가 개인의 시간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ZTPI를 Košťál 등(2016)이 단축화한 단축형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Short version of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를 이덕희(2019)가 한국형으로 타당화한 K-ZTPI-15를 사용하였다. K-ZTPI-15는 시간관(과거 부정, 과거 긍정, 현재 쾌락, 현재 숙명, 미래)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덕희(2019)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과거 부정, 과거 긍정, 현재 숙명, 현재 쾌락, 미래 각각 .69, .75, .61, .34, .7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과거 부정, 과거 긍정, 현재 숙명, 현재 쾌락, 미래 각각 .65, .62, .51, .39, .73이었다.

www.kci.go.kr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RSE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RSE-K를 사용하였다. RSE-K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전병재(1974)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3이었다.

Connor-Davidson 자아탄력성 척도(10-item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10). 본 연구에서는 Connor과 Davidson (2003)이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D-RISC를 Baek, Lee, Joo, Lee와 Choi(2010)가 번안한 문항 중에서 Campbell과 Stein(2007)이 탄력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CD-RISC-10은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Campbell과 Stein(2007)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다.

낙관성 척도(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 본 연구에서는 Scheier와 Carver(1985)가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LOT를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가 LOT 문항 중 대처 관련 문항을 제거하고 수정한 LOT-R을 사용하였다. LOT-R은 낙관성을 측정하는 10문항(긍정적 기대, 부정적 기대, 허구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허구문항에 해당하는 4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Scheier 등(1994)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75였다.

성인 희망 척도(Trait Hope Scale: THS). 본 연구에서는 Snyder 등(1991)이 성인의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THS를 강이영(2002)이 번안한 척도를 김택호, 김재환(2004)이 일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THS는 개인이 가진 기질적 특성을 통해 희망을 측정하는 12문항(통로사고, 주도적 사고, 중립)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중립 문항에 해당하는 4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부터 8점(매우 그렇다)까지 8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강이영(2002)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2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TFTPS를 타당화하기 위해 SPSS 21.0과 Mplus 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 간의 중복 가능성과,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합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둘째, 척도의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연구참여자의 50%를 SPSS를 통해 임의로 분류하여 탐색적 요인분석(n=339)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 요인추출

www.kci.go.kr

(Principal Axis Factoring)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고유값과 스크리 도표, 해석 가능성, 요인 부하량을 통해 결정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전체 연구참여자의 50%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n=343)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검증에 활용된 적합도 지수는 χ^2(chi-square),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Index)을 검토하였다. 이때, 모형의 RMSEA값이 .05이하 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 .08이하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형, 0.1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하였으며, CFI값과 TLI 값은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K-TFTP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희망 척도를 통한 준거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연령, 종교유무에 따른 집단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K-TFTPS의 기술통계 분석

K-TFTPS의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문항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항 간 상관관계는 .75미만으로 Kline(2016)이 제시한 .8이하임으로 변수 간 변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과 7 미만으로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 2. TFTPS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문항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	-									
V2	.499**	-								
V3	.456**	.540**	-							
V4	.182**	.207**	.351**	-						
V5	.066	-.018	.012	.017	-					
V6	.165**	.283**	.289**	.386**	-.025	-				
V7	.106**	.162**	.104**	.148**	-.074	.478**	-			
V8	.095*	.184**	.086*	.217**	.027	.330**	.273**	-		
V9	.130**	.281**	.209**	.310**	-.028	.462**	.357**	.507**	-	
V10	.210**	.288**	.352**	.454**	-.073	.748**	.393**	.339**	.494**	-
평균	2.899	3.007	2.689	3.010	3.016	3.444	3.594	3.456	3.381	3.252
표준편차	0.972	0.930	1.018	0.963	0.896	0.920	0.856	0.837	0.839	0.959
왜도	0.011	-0.157	0.141	-0.189	-0.277	-0.448	-0.597	-0.282	-0.378	-0.262
첨도	-0.366	-0.250	-0.382	-0.322	0.247	0.244	0.466	0.304	0.597	0.071

*p<.05, **p<.01.

www.kci.go.kr

지 확인하기 위해 KMO의 표본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검토한 결과, KMO 적합도 지수는 .801 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df=45,\ p=.000)=1107.359$로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aiser, 1974).

탐색적 요인분석(339명)

본 연구에서는 K-TFTPS의 요인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요인별 신뢰도는 표 3과 같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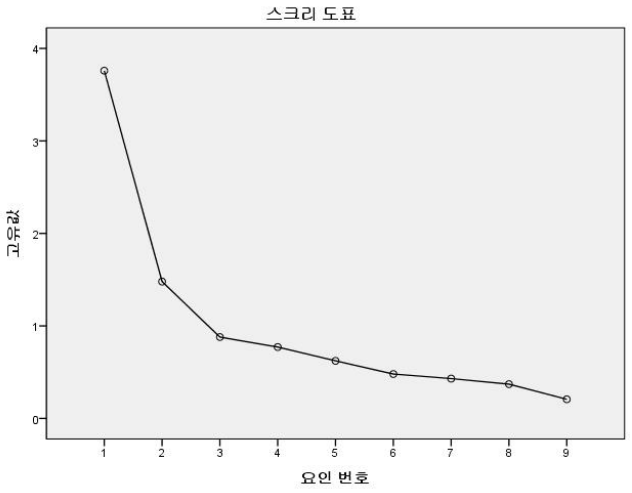

그림 1. K-TFTPS의 스크리 도표

표 3. K-TFTP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10문항	10문항		9문항(5번 제외)	
	요인 1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1. 죽는 것은 오로지 나의 육체만이다.	.292	.209	.671	.216	.670
2. 내 몸은 그저 진정한 내가 잠시 머무르는 집이다.	.378	.298	.724	.304	.752
3. 죽음은 그저 새로운 시작이다.	.372	.294	.679	.301	.691
4. 나는 기적을 믿는다.	.496	.458	.308	.460	.374
5. 진화론은 인간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한다.	-.020	-.027	.079	-	-
6. 인간은 영혼을 가진다.	.840	.886	.139	.889	.300
7. 과학적 규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407	.428	.032	.427	.118
8. 내가 죽을 때 나는 세상에서의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24	.420	.046	.418	.126
9. 인간이 따라야 할 신성한 법칙이 있다.	.558	.540	.194	.539	.292
10. 나는 영혼을 믿는다.	.827	.818	.215	.817	.360
신뢰도(Cronbach's α)				.750	.800

www.kci.go.kr

며, 스크리 도표는 그림 1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각 회전인 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고유값과 스크리 도표, 해석 가능성, 요인 부하량을 통해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중 1요인 결과는 4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이하로 낮았으며, 스크리 도표 상 요인의 수는 2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5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이하로 매우 낮으며, 문항이 초월적시간관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요인 1은 인간의 정신(영혼)과 육체가 이질적인 실체로 이루어졌다는 심신에 대한 이원론적 관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심신 이원론적 관점'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영혼, 기적 등 초월적 관점에 대한 개인의 관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초월적 관점'으로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343명)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2요인 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으며, 요인부하량은 표 5, 그림 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Mplus 8.0을 통해 모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요인의 적재치를

표 4. K-TFTPS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SRMR
1요인 모형	290.694	27	.000	.758	.678	.169(.152-.187)	.099
2요인 모형	116.375	26	.000	.917	.885	.101(.082-.120)	.052
2요인 모형 (수정요인 적용)	68.841	25	.000	.960	.942	.072(.052-.092)	.041

표 5. K-TFTPS의 요인부하량

문항	$\beta(B)$	$S.E$
심신이원론적 관점		
1. 죽는 것은 오로지 나의 육체만이다.	.600(1.000)	.000
2. 내 몸은 그저 진정한 내가 잠시 머무르는 집이다.	.748(1.190)***	.125
3. 죽음은 그저 새로운 시작이다.	.777(1.346)***	.149
초월적 관점		
4. 나는 기적을 믿는다.	.510(1.000)	.000
6. 인간은 영혼을 가진다.	.831(1.550)***	.165
7. 과학적 규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569(1.038)***	.135
8. 내가 죽을 때 나는 세상에서의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05(0.683)***	.111
9. 인간이 따라야 할 신성한 법칙이 있다.	.611(1.076)***	.131
10. 나는 영혼을 믿는다.	.912(1.834)***	.185

***p<.001.

www.kci.go.kr

계산하는 방법인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모수치들을 추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의 χ^2 값은 290.694(df=27, p<.000), CFI는 .758, TLI는 .678, RMSEA는 .169(.152-.187)로 모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요인 모형의 CFA 결과 χ^2 값은 116.375(df=26, p<.000), CFI는 .917, TLI는 .885, RMSEA는 .101(.082-.120)로 나타났다. 이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요인 내 측정오차 간 상관을 허용하였다. 측정오차 간 상관은 첫째, 동일 요인 내의 측정오차일 때, 둘째, 수정지수(M.I)의 값이 30이상일 때, 셋째, 이론적으로 측정오차 간 상관이 적절할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번 문항과 9번 문항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적용하였으며, 이때 χ^2 값은 88.095(df=25, p<.000), CFI는 .960, TLI는 .942, RMSEA는 .072(.052-.092)로 모델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이 모두 .4 이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간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r=.144, p<.001).

준거 타당도 검증

K-TFTP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준거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준거 타당도 검증은 TFTPS의 원 논문을 바탕으로 ZTPI와 영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자존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희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심신 이원론적 관점의 경우 과거긍정(r=.116, p<.01), 현재숙명(r=.214, p<.001), 현재쾌락(r=.100, p<.01), 미래(r=.120, p<.01), 자아탄력성(r=.089, p<.05), 희망(r=.089, p<.05)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월적 관점의 경우 과거부정(r=.079, p<.05), 과거긍정(r=.287, p<.001), 현재쾌락(r=.105, p<.05), 미래(r=.348, p<.001), 자존감(r=.192, p<.001), 자아탄력성(r=.240, p<.001), 낙관성(r=.247, p<.001), 희망(r=.254,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변별 타당도 검증

K-TFTPS의 집단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표 6. K-TFTPS와 준거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변인	심신 이원론적 관점	초월적 관점
과거부정	.075	.079*
과거긍정	.116**	.287***
현재숙명	.214***	.073
현재쾌락	.100**	.105**
미래	.120**	.348***
자존감	-.019	.192***
자아탄력성	.089*	.240***
낙관성	.008	.247***
희망	.089*	.254***

*p<.05, **p<.01, ***p<.001.

www.kci.go.kr

해 선행연구를 통해 TFTP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종교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K-TFTPS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심신 이원론적 관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0.892, p=.373), 초월적 관점은 여성(M=3.41, SD=0.61)이 남성(M=3.31, SD=0.64)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20, p=.027). 연령에 따른 K-TFTPS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심신 이원론적 관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953, p<.000), 사후분석 결과 40대(M=2.94, SD=0.82)와 50대 이상(M=3.07, SD=0.71)이 20대(M=2.64, SD=0.81)와 30대(M=2.80, SD=0.76)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월적 관점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219, p<.000), 사후분석 결과 40대(M=3.43, SD=0.65)와 50대 이상(M=3.48, SD=0.57)이 30대(M=3.25, SD=0.63)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교유무에 따른 K-TFTPS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심신 이원론적 관점(t=5.793, p<.000)과 초월적 관점(t=5.446, p<.000) 모두 종교가 있을 경우 더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Boyd와 Zimbardo(1997)가 개발하여 죽음 이후 개인의 시간관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사용되고 있는 TFTPS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FA를 통해 TFTP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으며, EFA를 통해 확인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FA를 실시하였다. 또한 TFTP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준거 타당도, 집단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준거 타당도의 경우 원 논문을 바탕으로 ZTPI와의 연관성을 탐색하였으며, 사후신념, 종교신념 및 영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자존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성인희망과의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집단 변별 타당도의 경우 초월적 미래 시간관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종교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TFTP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EFA를 실시했다. 이 때 표본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자료인지 평가하기 위해 문항 간의 중복 가능성 검토와 KMO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확인하였고, 분석 결과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유치와 스크리 도표, 해석 가능성을 통해 요인의 수를 판단하였으며, 문항의 요인 부하량을 통해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5번 문항(진화론은 인간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한다)이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였으며, 해당 문항이 초월적 시간관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5번 문항을 제외된 2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5번 문항이 제외된 결과는 포르투갈과 에스토니아 타당화 연구와 상응하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Ortuño, et al., 2013; Seema, et al., 2014), 두 연구 모두 5번 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매우 낮게 나타나 해당 문항을 타당화 척도에서 삭제하였

www.kci.go.kr

다.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은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최근 과학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 간 충돌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포루투갈 TFTPS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Ortuño 등(2013)은 5번 문항이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신념과 창조론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대립시킨다는 점에서 포르투갈의 사회, 문화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5번 문항의 삭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TFTPS는 2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첫 번째 요인은 '죽는 것은 오로지 나의 육체만이다', '내 몸은 그저 진정한 내가 잠시 머무르는 집이다', '죽음은 그저 새로운 시작이다'의 3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첫 번째 요인은 인간은 정신(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이질적인 실체로 이루어져있다는 심신에 대한 이원론적 관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심신 이원론적 관점' 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나는 기적을 믿는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다', '과학적 규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세상에서의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이 따라야 할 신성한 법칙이 있다','나는 영혼을 믿는다'의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영혼, 기적, 신성한 법칙, 현세의 행동에 대한 책임 등 초월적 관점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 관점'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요인으로 나타난 TFTPS의 원 논문(Boyd & Zimbardo, 1997)과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타당화 논문(Ortuño et al., 2013; Seema et al., 2014)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원 논문과 달리 K-TFTPS는 '초월적 관점'과 '심신 이원론적 관점'이 별개의 요인으로 분리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국인이 '초월적 관점'과 '심신 이원론적 관점'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이유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Nisbett (2004)은 동서양 간의 사고 경향의 차이가 심신 일원론과 이원론 같은 철학적 관점의 차이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심신 이원론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질적인 실체로 이루어져있다는 관점으로서, 서양문화권의 철학, 과학, 종교는 심신 이원론에 근간을 두고 발전했다. 특히 서양의 이원론적 관점은 서양철학과 크리스트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지고 있다(김태연, 2015; 이동환, 유산산, 전종우. 2018). 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서양의 이원론과 대조적으로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분리하여 보는 관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다 거시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통합적, 거시적 일원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이동환 등, 2018). 따라서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서양 문화권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묻는 문항과 이원론적 관점에 관한 문항을 별개의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반면,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영혼을 몸과 분리시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통합적인 존재라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영혼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동양과 서양이 다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판 TFTPS의 요인구조가 심신 이원론적 관점과 초월적 관점이 분리되어 나타난 이유를 원척도와 사회문화적 차이로 유추할 수 있다. 비록 기존 선행연구에서 TFTPS는 단일

www.kci.go.kr

요인으로 나타났으나(Boyd & Zimbardo, 1997; Ortuño et al., 2013; Seema et al., 2014), Seema 등(2014)은 TFTP가 ZTPI의 과거, 현재, 미래 시간관과 달리 단일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며 과거와 현재 시간관과 마찬가지로 TFTP가 2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K-TFTPS의 심신이원론적 관점과 초월적 관점을 통해 한국인의 초월적 미래 시간에 대한 신념 및 가치관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며, 한국인들의 우울, 불안, 삶의 의미 등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K-TFTPS의 요인구조가 신뢰롭고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확인한 결과, 각 하위요인 모두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K-TFTPS의 각 문항들은 척도를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원척도(Boyd & Zimbardo, 1997)는 초월적 미래 시간관의 단일 요인구조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2요인 구조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을 설정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1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K-TFTPS가 2요인 구조에 의해 적절하게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준거 타당도와 집단 변별 타당도 검증을 통해 K-TFTPS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TFTPS의 원 논문을 바탕으로 ZTPI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사후신념, 종교신념 및 영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난 '자존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희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ZTPI와의 상관을 확인해본 결과, 심신 이원론적 관점은 과거긍정, 현재숙명, 현재쾌락, 미래 시간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월적 관점은 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숙명, 현재쾌락, 미래 시간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월적 관점과 미래 시간관 간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상관계수는 .3 이하로 낮은 상관이 나타났다. Boyd와 Zimbardo(2006) 연구에 따르면, TFTP가 현재운명, 과거긍정, 과거부정과 유의미하지만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에스토니아 타당화 연구에서는 과거긍정, 현재숙명, 미래 시간관과 유의미하지만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Seema et al., 2014), 포르투갈 타당화 연구에서는 과거긍정, 과거부정, 현재쾌락, 현재숙명, 미래 시간관 모두와 유의미하지만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Ortuño et al., 2013). 하지만 본 연구의 K-TFTPS의 초월적 관점과 미래 시간관의 상관은 .3 이상으로 이는 에스토니아와 포르투갈 연구결과 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 연구에서 TFTPS는 시간관보다는 사후신념을 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평가하였는데, ZTPI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념, 지향성,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TFTPS는 초월적 미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Seema et al., 2014). 이를 통해 TFTPS는 기존의 Zimbardo 시간관과는 다른 초월적 미래 시간에 대한 새로운 속성을 측정하는 척도라는 것

www.kci.go.kr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TFTPS의 각 하위요인과 시간관 간 상관이 유의하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심신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자아탄력성과 희망과 유의미하지만 낮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초월적 관점에서는 자존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희망과 유의미하지만 낮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사후 신념, 종교적 신념, 영성이 개인의 자존감, 탄력성, 낙관성, 희망과 깊은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Chang et al., 2013; Cheadle & Schetter, 2018; Fradelos et al., 2018; Hayman et al., 2007; Hunter-Hernández et al., 2015; Yonker et al., 2012). 하지만 에스토니아 타당화 연구에서는 TFTP와 자존감, 안녕감, 마음챙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자존감 변인과 TFTP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안면 타당도를 들었다(Seema et al., 2014). TFTPS는 대체로 현재시제를 통해 초월적 미래에 관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예, “인간은 영혼을 가진다.”, “죽음은 그저 새로운 시작이다.”). 즉, TFTPS는 의미 기억 체계를 자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의미 기억 체계란 정보를 학습하는 시간이나 맥락과 무관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기억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존감 같은 변인은 의미 기억보다는 과거의 경험이나 정서 같이 보다 깊은 내면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심신 이원론적 관점과 자아탄력성과 희망 간 유의미하지만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초월적 관점과 자존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희망 간 유의미하지만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K-TFTPS의 집단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TFTP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종교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하위요인의 경우 초월적 관점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초월적 관점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신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Boyd와 Zimbardo(1997)의 연구와 에스토니아, 포르투갈의 타당화 연구(Ortuño et al., 2013; Seema, et al., 2014)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초월적 시간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과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영혼의 존재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며,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이상목, 김상연. 2012), 이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와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초월적 관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문항의 전체 점수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40대와 50대가 20대와 30대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신 이원론적 관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40대와 50대가 20대와 30대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

www.kci.go.kr

월적 관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40대와 50대가 30대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와 포르투갈 타당화 연구(Ortuño et al., 2013; Seema, et al., 2014)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oyd와 Zimbardo (1997)의 연구에서는 20대의 초월적 시간관 점수가 가장 낮았고, 50대의 초월적 시간관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만 21-34세가 만 35-79세보다 더 낮은 종교적 신념을 나타낸다는 Mattis 등(2001)의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 된다.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중년기부터 시작하여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여 죽음을 직면하는 과업이 주어지며,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친밀감과 생산성이라는 주요 발달과업이 주어지지만, 40-50대 중장년층의 경우 성숙한 노화와 죽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주어진다. 이처럼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를 경우 중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더 높은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영숙, 이화진 2014).

마지막으로,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심신 이원론적 관점과 초월적 관점 모두 종교가 있을 때 점수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종교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종교집단에 소속된 사람보다 TFTPS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Boyd와 Zimbardo(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Kim 등(2004)과, 서경현과 전겸구(2004)의 연구에서는 어떠한 종교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종교집단에 속한 사람들보다 영성 혹은 종교적 신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 이에 따라 TFTP는 개인의 종교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TFTP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중심으로 한 시간관 척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TFTP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둘째, K-TFTPS를 통해 한국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선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태도, 신념,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TFTP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TFTP가 자아탄력성, 희망, 낙관성 등 긍정적인 심리건강 변인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TFTP와 심리건강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연구결과, 한국인들의 TFTP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청년층보다 중년층에게, 무교인보다 종교인에게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상담 장면에서 TFTP에 대하여 내담자들의 성별, 연령, 종교유무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10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진행되었지만 (Boyd & Zimbardo, 1997; Ortuño et al., 2013; Seema et al., 2014), 본 연구는 청소년과 노년층을 제외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진행되었

www.kci.go.kr

다. Boyd와 Zimbardo(1997)의 연구에서는 가장 어린 10대 연령층의 TFTP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olmes와 Kim-Spoon(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높은 사후 신념이 낮은 수준의 위험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층일수록 낮은 연령층보다 사후신념, 종교성, 영성 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죽음 이후에 대한 태도가 불안과 우울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Henrie & Patrick, 2014; Stanley et al., 2011).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노년층을 대상에 포함한 TFTPS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과 노년층의 TFTP가 심리건강과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TFTPS가 '시간관'의 정의에 걸맞게 사후시간에 대한 개인의 신념, 태도, 가치관을 균형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지 못하였다. 에스토니아 타당화 연구는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을 사용하여 TFTPS가 특정 시간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TFTPS는 개인의 태도보다는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에 알맞다는 결과가 나타났다(Seema et al., 2014). 추후 연구에서 TFTPS가 초월적 미래 신념을 측정하는지, 초월적 미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측정하는지, 시간 지향성,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시간관에 대한 척도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TFTPS 척도의 경우 문화적 차이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본 한국판 TFTPS 타당화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2요인)는 원척도 개발연구의 요인구조(1요인)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지, 아니면 연구대상에서의 차이나 연구과정 및 절차가 다른데서 기인하는 것인지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적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척도의 경우 예비연구를 진행하여 문항이 원척도와 같은 요인구조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외부전문가와 연구 참여자 대상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TFTPS를 아시아 최초로 타당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차원의 시간관과 그 영향력을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이영 (2002). 상담과정 희망척도의 개발과 적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태연 (2015). 파울 카루스의 '과학종교'연구: 19 세기에 나타난 "종교의 과학화". 신학연구, 67, 413-442.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박희은, 김기호, 이장한 (2017). 한국형 스웨덴 짐바르도 시간관 설문지 타당화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1), 489-502.

서경현, 전겸구 (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33-350.

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77-1095.

윤소정, 김정섭 (2012).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587-606.

www.kci.go.kr

이덕희 (2019). 한국판 단축형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동환, 유산산, 전종우 (2018). 종교와 사고 경향 (분석적 - 종합적 사고: Analytic-Holistic Thinking) 이 노스탤지어 광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16(1), 179-222.

이상목, 김상연 (2012). 삶과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생명윤리, 13(2), 1-18.

정영숙, 이화진 (2014). 중년기의 성숙한 노화와 죽음 태도 및 죽음 대처 유능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131-154.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탁진국, 장성배, 김수연, 이병걸, 남동엽 (2016).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3), 367-383.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nagnostopoulos, F., & Griva, F. (2012). Exploring time perspective in Greek young adults: Validation of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and relationships with mental health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6*(1), 41-59.

Baek, H. S., Lee, K. U., Joo, E. J., Lee, M. Y., & Choi, K. S. (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Psychiatry Investigation, 7*(2), 109-115.

Baumsteiger, R., & Chenneville, T. (2015). Challenges to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research.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4*(6), 2344-2354.

Boyd, J. N., & Zimbardo, P. G. (1997). Constructing time after death: The transcendental-future time perspective. *Time & Society, 6*(1), 35-54.

Boyd, J. N., & Zimbardo, P. G. (2006). Constructing time after death: the transcendental future time perspective. In G. L. Lance & M. A. Thalbourne (Eds.), In The survival of human consciousness: essays on the possibility of life after death (pp. 107-126). Jefferson, NC: McFarland & Co.

Brown, D. R., Carney, J. S., Parrish, M. S., & Klem, J. L. (2013). Assessing spiritu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15*(2), 107-122.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Campbell Sills, L., & Stein, M. B. (2007). Psychometric analysis and refinement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 RISC): Validation of a 10 item measure of resili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20*(6), 1019-1028.

Chang, E. C., Kahle, E. R., Yu, E. A., Lee, J. Y., Kupfermann, Y., & Hirsch, J. K. (2013). Relations of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with depressive symptoms in primary care adults: Evidence for hope agency and pathway as mediator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4), 314-321.

Cheadle, A. C., & Schetter, C. D. (2018). Mastery, self-esteem, and optimism mediate the link between religiousness and spirituality and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5), 711-721.

Connor, K. M., & Davidson, J. R.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 Davidson resilience scale (CD RISC).

www.kci.go.kr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1), 1-171.

Flannelly, K. J., Ellison, C. G., Galek, K., & Koenig, H. G. (2008). Beliefs about life-after-death, psychiatric symptomology and cognitive theories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6*(2), 94-103.

Fradelos, E. C., Latsou, D., Mitsi, D., Tsaras, K., Lekka, D., Lavdaniti, M., ... & Papathanasiou, I. V. (2018). Assessment of the relation between religiosity,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in breast cancer patients. *Contemporary Oncology, 22*(3), 172-177.

Galek, K., & Porter, M. (2010). A brief review of religious beliefs in research on mental health and ETAS theory.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16*(1-2), 58-64.

Gray, J. G. (1951). The idea of death in existentialism. *The Journal of Philosophy, 48*(5), 113-127.

Harrawood, L. K. (2010). Measuring spirituality, religiosity, and denial in individuals working in funeral service to predict death anxiety.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0*(2), 129-142.

Hayman, J. W., Kurpius, S. R., Befort, C., Nicpon, M. F., Hull-Blanks, E., Sollenberger, S., & Huser, L. (2007). Spirituality among college freshmen: Relationships to self-esteem, body image, and stress. *Counseling and Values, 52*(1), 5 - 70.

Henningsgaard, J. M., & Arnau, R. C. (2008).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sity, spirituality, and personality: A multivariate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8), 703-708.

Henrie, J., & Patrick, J. H. (2014). Religiousness, religious doubt, and death anxie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8*(3), 203-227.

Holmes, C., & Kim-Spoon, J. (2017). Adolescents' religiousness and substance use are linked via afterlife beliefs and future orientation.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7*(8), 1054-1077.

Hu, L.,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 - 453.

Hulbert, R. J., & Lens, W. (1988). Time perspective, time attitude, and time orientation in alcoholism: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3*(3), 279-298.

Hunter-Hernández, M., Costas-Muñíz, R., & Gany, F. (2015). Missed opportunity: spirituality as a bridge to resilience in Latinos with cancer.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4*(6), 2367-2375.

James, A., & Wells, A. (2002). Death beliefs, superstitious beliefs and health anxiet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1), 43-53.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Kant, I. (1965). *Critique of pure reason*(N. Smith Trans.). New York: St. Martin'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781).

Kim, Y., Seidlitz, L., Ro, Y., Evinger, J. S., & Duberstein, P. R. (2004). Spirituality and affect: A function of changes in religious affili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4), 861-870.

Klenow, D. J., & Bolin, R. C. (1990). Belief in an afterlife: A national survey.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20*(1), 63-74.

Kline, R. B. (2016). *Methodology in the social*

www.kci.go.kr

sciences. P 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Košťál, J., Klicperová-Baker, M., Lukavská, K., & Lukavský, J. (2016). Short version of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short) with and without the Future-Negative scale, verified on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s. *Time & Society, 25*(2), 169-192.

Lens, W., & Gailly, A. (1980). Extension of future time perspective in motivational goals of different age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 1-17.

Lewin, K. (1942). Time perspective and morale. In G. Lewin (Ed.), Resolving social confl icts (pp. 103-124). New York: Harper.

Mattis, J. S., Murray, Y. F., Hatcher, C. A., Hearn, K. D., Lawhon, G. D., Murphy, E. J., & Washington, T. A. (2001). Religiosity, spirituality, and the subjective quality of African American men's friendship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4), 221-230.

McClain-Jacobson, C., Rosenfeld, B., Kosinski, A., Pessin, H., Cimino, J. E., & Breitbart, W. (2004). Belief in an afterlife, spiritual well-being and end-of-life despair in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General Hospital Psychiatry, 26*(6), 484-486.

Muldoon, M., & King, N. (1995). Spirituality, health care, and bioethic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4*(4), 329-350.

Nisbett, R. (2004).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Simon and Schuster. 최인철(역) (2004). 생각의 지도. 서울: 김영사.

Nurmi, J. E. (1991). How do adolescents see their future? 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future orientation and planning. Developmental Review, 11, 1-59. http://dx.doi.org/10.1016/0273-2297(91)90002-6

Nuttin, J. R. (1964). The future time perspective in human motivation and learning. *Acta Psychologica, 23*, 60-82.

Ortuño, V. E., Paixão, M. P., & Janeiro, I. N. (2013). Tempus Post-mortem?: Portuguese Adaptation of the Transcendental-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TFTPS). *Avances en Psicologia Latinoamericana, 31*(2), 376-388.

Peterman, A. H., Fitchett, G., Brady, M. J., Hernandez, L., & Cella, D. (2002). Measuring spiritual well-being in people with cancer: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Spiritual Well-being Scale (FACIT-Sp).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4*(1), 49-58.

Rasmussen, C. H., & Johnson, M. E. (1994).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Relative relationships to death anxiety.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29*, 313-318.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https://bit.ly/30sbMcU.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Schnabel, L. (2015). How religious are American women and men?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4*(3), 616-622.

www.kci.go.kr

Seema, R., Sircova, A., & Baltin, A. (2014). TRANSCENDENTAL FUTURE--IS IT A HEALTHY BELIEF OR A TIME PERSPECTIVE? THE TRANSCENDENTAL-FUTURE TIME PERSPECTIVE INVENTORY (TTPI) IN ESTONIAN. *TRAMES: A Journal of the Humanities & Social Sciences, 18*(1), 57-75.

Sircova, A., Sokolova, E. T., & Mitina, O. V. (2008). Adaptacija oprosnika vremennoj perspektivy licnosti F. *Zimbardo. Psixologičesi Žurnal, 29,* 101-109.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Stanley, M. A., Bush, A. L., Camp, M. E., Jameson, J. P., Phillips, L. L., Barber, C. R., ... & Cully, J. A. (2011). Older Adults' Preferences for Religion/Spirituality in Treatment for Anxiety and Depression. *Aging & Mental Health, 15*(3), 334-343.

Suddendorf, T., Addis, D. R., & Corballis, M. C. (2009). Mental time travel and the shaping of the human mind.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64*(1521), 1317-1324.

Suddendorf, T., & Corballis, M. C. (2007). The evolution of foresight: What is mental time travel, and is it unique to human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0*(3), 299-313.

Szpunar, K. K. (2010). Episodic future thought: An emerging concep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2), 142-162.

Timoszyk-Tomczak, C., & Bugajska, B. (2018). Transcendent and Transcendental Time Perspective Inventory. *Frontiers in Psychology, 9*. 2677. doi: 10.3389/fpsyg.2018.02677.

Toda, M. (1983). Future time perspective and human cognition: An evolutional 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8*(1-4), 351-365.

Toussaint, L. L., Williams, D. R., Musick, M. A., & Everson, S. A. (2001). Forgiveness and health: Age differences in a US probability samp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4), 249-257.

Tulving, E. (1985). Memory and consciousness.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26*(1), 1-12.

Unterrainer, H. F., Lewis, A. J., & Fink, A. (2014). Religious/spiritual well-being,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results and conceptual issu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3*(2), 382-392.

van Beek W., Kairys A. (2015). Time Perspective and Transcendental Future Thinking. In: Stolarski M., Fieulaine N., van Beek W. (eds) *Time Perspective Theory: Review, Research and Application.* Cham,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Yonker, J. E., Schnabelrauch, C. A., & DeHaan, L. 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on psychological outcomes in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dolescence, 35*(2), 299-314.

Zimbardo, P. G. & Boyd, J. N.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 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71-1288.

Zimbardo, P., & Boyd, J. (2008). *The time paradox: The new psychology of time that will change your life.* NY: Simon and Schuster.

원고접수일: 2021년 6월 29일
논문심사일: 2021년 7월 8일
게재결정일: 2021년 8월 27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1. Vol. 26, No. 6, 961 - 983

A Validation Study of the Transcendental-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Deok-Hee LeeSeul-Ki NamDong-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a Korean version of the Transcendental-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TFTPS) from transcendental-future time perspective, meaning personal attitude, values, and beliefs toward the time after death. To this end, 682 Korean adults were administered TFTPS which was adapted through translation and back-translation. Data were examined for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First,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for a sample of 339 out of 682 Korean adults. Two factors with 9 items (mind-body dualism factor with 3 items and transcendental factor with 6 items) were obtained. Seco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for a sample of 343 Korean adults. Results showed that the 2 factor model was adequate. Third,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confirmed through time perspective, self-esteem, self-resilience, optimism, and hope. Discriminant validity was also confirmed through gender, age, and religious affiliatio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TFTPS, time perspective, validation, self-esteem, self-resilience, hope

www.kci.go.kr